

‘신암행어사’ 출두요!

한·일합작 극장용 애니 제작 ... 내년 가을 개봉 예정

한국과 일본에서 인기리에 연재된 양경일, 윤인완 작가의 만화 ‘신암행어사’가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한다. 특히 이 작품은 최초의 한일합작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될 계획이라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내년 가을 개봉을 목표로 현재 프리프로덕션에 들어간 ‘신암행어사’를 만나본다.

글 / 신선자 객원기자

한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양경일(그림) 윤인완(스토리)원작 만화 ‘신암행어사’가 한·일 합작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공동 제작된다.

대원씨엔에이홀딩스와 캐릭터플랜은 ‘신암행어사’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을 일본의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초의 한일 합작 애니메이션

‘신암행어사’는 일본의 3대 메이지 출판사인 소학관의 월간만화 잡지 ‘선데이GX’와 한국의 ‘영챔프’ (대원씨아이 발행)에 동시 연재돼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 특히 일본에서의 연재는 초기부터 잡지 내 인기순위 1위를 달리며 권당 20만부 이상 판매될 만큼 인기가 높았다.

특히 이 작품은 지금까지 한국 만화가 간헐적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양국 합작 애니메이션으로까지 제작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대원씨엔에이홀딩스 한 관계자는 “이번 합작은 만화왕국 일본에서 한국 만화의 우수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쾌거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일본은 물론 범아시아, 나아가 미국, 유럽 등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신암행어사’ 영화의 추진모체가 되는 제작위원회에는 소학관을 비롯해 이마지 엔터테인먼트, 닛쇼이와이, 클룩릭스 등 일본 기업 6개사와 대원씨엔에이홀딩스, 캐릭터플랜 등 한국 기업 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공동출자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참여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D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될 이 작품 필름 제작은 ‘포켓몬스터’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한 OLM과 이번 SICAF 2003의 개막작 ‘망치’를 제작한 캐릭터플랜이 공동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다. 제작사측에 따르면 ‘신암행어사’는 메인 타깃을 13~18세 청소년, 서브 타깃을 19~24세의 성인으로 잡고 현재 캐릭터 설정 등 프리프로덕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데모 필름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작비 규모는 순제작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50억원. 현재 한국은 30%의 지분을 가진 공동제작사로 주관사인 일본을 돕게 된다.

흥행성 검증된 원작 ‘강점’

‘신암행어사’는 한국에서 크게 히트한 ‘아일랜드’로 일본에서도 주목을 받은 양경일, 윤인완 콤비가 한국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판타지로 재구성한 야심찬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 줄거리는 패망한 가상의 나라 ‘주신’의 암행어사 ‘문수’가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에피소드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린 이 작품은 조선시대 암행어사를 현대적인 영웅으로 묘사하는 권선징악적 스토리에 ‘춘향전’ 같은 우리 고전의 내용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재해석해 삽입함으로써 일본 독자들에게 독특한 만화 상상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주인공 ‘문수’의 영웅적인 이미지와 환타지에 하드코어 스타일이 결합된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비주얼은 해외 다른 문화권에서도 포변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이미지이며, 여기에 절묘하게 어우러진 한국적인 분위기의 독창성은 세계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애니메이션은 내년 가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개봉될 계획이다. 양국서 흥행성이 검증된 원작을 ‘강점’으로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한 ‘신암행어사’. 향후 한국 애니메이션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좋은 계기를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 